

■ 르포 - 전남대학교 국토대장정단 동행 취재

장맛비·땀별 뚫고 560km 광주 체전 온몸으로 홍보

다시 오른쪽 허벅지까지 통증이 물러왔다. 이 정도 통증이면 발바닥은 이제 물집이 잡힐 곳이 없을 만큼 짓물러져 있겠다. 2시간째 쏟아지는 장맛비 사이로 앞서가는 동료학생들의 모습이 뿌옇게 어른거린다. 하지만, 유대홍(21·전남대 신소재공학부 1년)씨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언제 도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중학교 때부터 키워온 '국토대장정'의 꿈인데..

이를 막고 발걸음을 때는 유씨를 정현웅(26·경영학부 4년)씨가 부축한다. "오늘은 여기서 쉬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유씨는 정씨의 한마디에 천근만근 온몸을 짓누르던 배낭의 무게도 잊은 채 "아아~"

하는 함성을 내지른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구리초등학교 교정. 흠뻑 젖은 몸에 들먹은 배낭을 짊어진 전

학교 개교 55주년을 제88회 전국체전 광주 개최를 온 국민에게 알리며 17일째 국토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이날까지 하

땅끝서 도라산역까지 20박 21일

43명 "전원 완주" 힘찬 발걸음

남대학교 남녀 학생 43명이 힘겹게 들어섰다.

이들은 지난 3일 해남 땅끝을 출발,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까지 560km의 대장정에 나선 '전남대학교 학생 국토대장정단'이다. 전남대

투 30km를 걸어 모두 평균한 거리는 483km. 강진~영암~나주~광주~장성~정읍~김제~익산~논산~공주~천안~평택~용인~경기도 파주 등을 거쳐왔다. 이제 목적지가 80km만을 남겨둔 것이다.



도라산역을 향해

'전남대학교 학생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학생들이 장정 18일째인 20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에서 파주시 도라산역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여기까지 모두 함께 와서 우리 스스로 대견스러워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땀방이 내리쳐었는데"

대장인 김환성(25·수의학과 3년)씨 등 남학생 23명과, 여학생 20명에 인솔자와 간호사 등 모두 45명으로 구성된 대장정단의 지나는 17일은 장맛비와 강풍·땀별과의 싸움이었다. 17일 중 10일 동안 장맛비가 쏟아졌고, 그렇지 않은 날은 바람

한점 없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대원들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김혜련(여·22·인류학과·3년)씨는 "남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격려해주는 국민이 있어서 힘이 됐다"며 "남녀 땅 전라도 사람들이 올해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조국의 산하를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대장정에 나섰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부

듯했다"고 말했다. 20일 아침, 대원들은 다시 신발끈을 풀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장정도 이제 막바지다. 목표는 4천만 민족의 통일 염원을 간직한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북쪽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머리 위로 오랜만에 햇살이 쏟아졌다. /경기도 구리시=인현주기자 ahj@

나원침 (7267) 김종두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학교

KCC함양, 시스템함양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대학교

실리콘 방수재·합착재·타이브

광주광역시 종합특별을
누리는 3,813 회대권!

광명동 후수경관 공영 학교 단지

수원신도시 파오리

문의전화 082-367-9000

동국대, 신정아씨 파면·고소

기자회견, 임용 검증 연루자 전원 문책키로

광주지검, 비엔날레 간부 2명 참고인 조사

동국대학교는 20일 학력위조 행각을 벌여 온 신정아(35·여) 조교수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한편 임용 당시 검증 부실 등 이면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전원을 문책키로 했다. 동국대는 또 자체조사 결과 학력을 위조한 신 조교수의 채용 과정에 아무런 위압이나 비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이날 오후 법인 이사회 종료 후 교내 본관 5층 교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교 총장의 대국민 사과문에 이어 이런 내용의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진수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진상규명위원회는 "채용 과정에 위압이나 금품에 의한 청탁 비리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홍기삼 전 총장, 당시 이사였던 임용택(법명 영배) 현 이사장, 당시 기획처장 2인 등 13명을 조사했으나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해 스톱 등 핵심 고위직 일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홍기삼 전 총장의 지나치게 의욕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며 학력관련 서류를 접수 및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석·박사 성적증명서가 누락되는 등 행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광주비엔날레의 신정아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20일 신씨를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무

검찰은 또 비엔날레 측이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서류 제출을 비엔날레 측에 요청하고 허위리서서 제출과정 등 신씨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동국대가 검찰에 신씨를 형사고발하더라도 서로 사안이 다른 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영교 동국대 총장(오른쪽)이 20일 오후 동국대에서 신정아씨의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한진수 부총장등 위원들. /연합뉴스

"직접 증거 없어도 간접 증거로 유죄" 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0일 임모(52·순천시 연합동)씨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 범행 동기가 충분하고 월 40만 원의 보험료도 임씨의 경제사정에 비해 볼 때 이례적으로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우발적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2004년 11월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왼쪽 눈을 찔려 실명했다며 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11억원의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보험회사가 저해하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수 싸이 병무청 상대 행정소송

○근북부 비리의혹에 연루, 재입대 통보를 받은 싸이(본명 박재상·30)가 '병무청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싸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는 20일 ▲싸이에게는 적법 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병무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병무청이 신뢰보도 원칙을 위반했으며 ▲특례업체 근무 당시 사례 등을 제출했지만 병무청이 소명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 ○싸이는 이날 새벽 홈페이지에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병역비리범, 기피범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연합뉴스

오전 이슬비
오전에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7월 21일 (음 6월 8일) 전국날씨

광주	비후개	22~27℃
포항	비후개	22~27℃
안동	비후개	21~25℃
영주	비후개	22~27℃
구미	비후개	23~28℃
해남	비후개	22~27℃
장흥	비후개	21~27℃
홍천	비후개	22~27℃
영광	비후개	21~28℃
순창	비후개	21~27℃
진안	비후개	22~27℃
전주	비후개	23~28℃
남원	비후개	23~29℃
홍성	비후개	20~24℃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6:28 썰물 < 11:50
여수 밀물 < 00:52 썰물 < 07:07

▲해돋이 05:33 ▲해질 19:44 ▲달출 11:57 ▲달질 23:15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날씨						
최저/최고	22/29	22/30	22/26	22/28	23/30	23/30

장맛비 그친 뒤 열대야

21일 광주·전남 지역에 5~20mm의 장맛비가 내린 뒤 오후 늦게쯤 짙게 흐르면서 "광주·전남 지역은 21일 장맛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온 뒤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이다. 기상청은 또 "휴일인 22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가 되겠다"

며, 낮 최고 기온은 25~31도까지 올라 답겠다"고 밝혔다. 최저기온도 열대야(熱帶夜)기준에 가까운 2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 한여름밤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례지역은 20일 열대야현상과 함께 낮 최고기온이 33.8도까지 오르는 등 나흘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도심 16차레 '오토바이 날치기'

피해 여성 기지로 붙잡혀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20여일 동안 여성 16명의 핸드백을 날치기해 30대가 피해 여성의 기지로 붙잡혔다.

지난 19일 오전 11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J수퍼 앞 길에서 김모(31)씨가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나가던 조모(여·30·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씨의 핸드백을 낚아챘다.

하지만 오토바이 날치기범임을 직감한 조씨가 오히려 김씨의 손목시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순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지나가던 주민 A(42)씨가 김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를 20일 김씨를 특가법상 절도(날치기)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C미용실 앞 길에서 현금 8만원 상당이 든 박모(여·73)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서구 8건 ▲북구 3건 ▲광산구 3건 ▲남구 2건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의 금품을 날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새벽과 밤 시간대가 아닌 ▲오전 7시~오전 11시(5

건) ▲오후 1시~저녁 7시(8건) 등 주로 대낮에 범행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에따라 경찰이 지난 2일 광주지방경찰청을 개청하면서 이 같은 도시형 범죄 척결에 주력한다고 약속하고도, 대낮 날치기범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타워크레인노조원들

광주·전남 8곳 고공농성

고공안전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4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타워크레인노조 광주·전남지회 노조원들이 20일 새벽 타워크레인을 접거한 채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5시 사이에 노조원 26명이 광주시 광산구 하남 2지구와 수완지구·서구 풍암동·북구 전남대·목포시 남악 신도시 등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8대에 동시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할인매장 납품 리베이트 수억 수수

5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대형 할인매장 납품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순천지역 할인매장 본사 직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대형할인매장에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순천 C할인매장의 본사 노모(38) 부장 등 대형할인매장 직원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회사 돈을 빼내 할인매장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쓴 순천농협 황모(45) 상무 등 2명을 배임증제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부장은 월 매출 1억원이 넘는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금액의 1~1.5%인 2여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할인매장 장모(35·구속기소) 과장도 업체 5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원을, 조모(42·구속기소) 과장은 업체 6곳으로부터 8천1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농협 황 상무는 농협 자금 3억 7천만원을 횡령해 이중 농협상품을 납품하는 대가 등으로 3천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사단법인 T협회 윤모(41·구속기소) 사무국장도 법인 자금 4억4천만원을 횡령해 협회 상품을 납품하는 대가 등으로 1억7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빼내 할인매장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또는 불구속 기소했고,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3명 등 2명을 배임증제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할인매장 직원의 경우 노골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며 "유통업계에서 관행화돼 온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돈을 건넨 일부 업체에 대한 자금 추적을 해 추가 범죄사실을 밝힐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해리포터' 완결편 오늘 동시 출간
광주·전남 서점가도 '들쭉'

번역본은 11월에

영국 작가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완결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도들'(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이 21일 전세계 동시 출간을 앞두고 광주·전남 등 국내 서점가도 들쭉이 고 있다. 삼복서점·영풍문고·총장서림 등 광주지역 서점과 목포·여수 등 전남지역 서점에서는 지난 19일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이 들어와 21일 오전 8시 판매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터파크도서와 교보문고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도 출간을 기념한 도서 할인 판매와 책갈피·해리포터 아트노트 증정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전남 주요 서점에서는 벌써 1천여 권이 예약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점 관계자는 "동시 출간을 앞두고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한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종편의 출간과 더불어 이미 출간된 시리즈 6권의 판매도 1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